

한글날, 시를 읽는 또 하나의 방법

한글날을 맞아, 한글로 쓰인 아름다운 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납니다.

거제를 대표하는 시인 청마 유치환의 시를 거제에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 16인이 각자의 예술 언어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회화와 한국화, 서예 등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은 시 속에 담긴 감정과 상징, 그리고 언어의 울림을 작품으로 이어갑니다.

한 편의 시는 읽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전시는 그 다양한 해석을 눈으로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익숙하게 읽었던 청마의 시를, 이번에는 작품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청마의 시를 품은 거제 작가 16인의 대작을 만나다

거제에서 활동하는 작가 16인이 청마 유치환의 시를 주제로 새롭게 창작한 대형 작품을 선보입니다.

같은 시를 마주했지만 작품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시의 한 구절을 색으로 풀어내고, 누군가는 붓의 선으로 감정을 담아 내며, 또 다른 이는 글씨 자체를 하나의 예술로 완성했습니다.

문학과 시각예술이 만나 탄생한 열여섯 개의 작품. 이번 전시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우리가 문학을 감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 함께하는 전시 투어 프로그램.

참여 사전신청(거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한글날 특별전'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장소 거제문화예술회관 문화지음 2층 아트랩

9. 12. (토) 오전 11시 이 재 구 작가

9. 12. (토) 오후 02시 조 창 희 작가

9. 16. (수) 오후 02시 권 용 복 작가

9. 19. (토) 오후 02시 허 인 수 작가

9. 30. (수) 오후 02시 정 명 란 작가

10. 3. (토) 오후 02시 엄 윤 숙 작가

10. 9. (금) 오후 02시 신 선 주 작가

※ 본 프로그램은 재단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마 유치환의 시세계와 시각예술

청마 유치환 문학 세계를 배우는 강의 프로그램

참여 사전신청(거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한글날 특별전'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일시 10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거제문화예술회관 문화지음 2층 아트랩

강사 김정희(청마기념관)

단체관람

20명 내외 단체 관람 사전 예약 필요

예약방법 거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한글날 특별전'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곽지은	 · 개인전 21회 · 단체전 및 아트페어 200여회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외 작품 다수 소장
권용복	 · 개인전10회, 단체전 300여회 · 경남미협 자문위원, 양달석미술관 관장 · 거제미협.신우회(부산), 한일 미술작가 교류회 회원
김명화	 · 개인전 20회 · 기획전_25ARTNY(뉴욕)외 50여회 참여 · 아트페어_홍콩어포더블아트페어 외 다수 참여
김영명	 · 개인전2회 · 단체전 다수 · 거제미술포럼 회원
김영희	 ·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조형디자인전공 · 개인전 15회 · 단체그룹전 300여회
박광수	 · 개인전 6회 · 2024년 나는 거제작가다전(서울 구구갤러리) · 공모전 입상 및 단체전 40여회
신선주	 · Pratt Institute, Painting / Photography (MFA 복수전공) · 국내외 개인전 19회, 그룹전 다수, Frieze 뉴욕, Art HK 등 · 송은미술대상, SEMA, H-아트랩, 영은레지던시 등 선정 · 서울시립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현대카드 등 소장
엄운숙	 · 개인 초대전 35회 (2000~2026) · 엄운숙 엄윤영 2인전 24회(1987~2026)

이유경	 ·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졸업 · 개인전14회 및 다수의 기획전, 아트페어, 단체전 참여 ·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이재구	 · 개인전 6회, 부스 개인전 2회 · 초대전, 기획전, 그룹전, 협회전 등 400여회 · 거제시 문화예술창작촌 입주 작가
정명란	 · 신라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2회, 2인전 1회, 단체전, 협회전, 초대전 180여회 · 現) 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장
조창희	 ·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 개인전12회, 아트페어13회 · 중국, 대만, 프랑스, 한국 등 아트페어 및 기획초대전, 그룹전 200여회
진강욱	 · 추계예술대학교 판화과 졸업 · Floor, 거제미술포럼, 양달석 기념사업회 단체전 · 2022 315 미술대전 서양화부문 심사위원 · 2025 거제문화예술회관 ‘내 마음의 바다’ 초대전
진영세	 · 개인전 18회 · 대한민국 서예대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등 심사위원 다수 역임
최태항	 · 개인전 3회 · 협회전, 그룹전, 기획전 외 다수 · 한국미술협회 거제지부장, 거제예총지회장 역임
허인수	 · 개인전 6회 및 단체 초대전 300여회 참여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 심사위원 역임 · 現) 성파하동주 서예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 청강서예연구원 주재